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순천시 팡파르

오늘까지 이틀간 순천만국가정원서 개최

균형발전 + 지역혁신 비전·정책 논의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혁신의 비전과 정책을 논의하는 '2019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가 25일 오전 11시 순천만국가정원에서 막이 올랐다.

오는 27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균형발전 박람회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가 전국 17개 시·도가 함께 한다.

이날 개막식에는 송재호 균형발전위원장을 비롯해 김영록 전남지사, 허석 순천시장 등 17개 시·도 인사와 관계부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혁신협의회, 지역혁신가,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순천만국가정원에서 진행되는 개막식에서는 지역 혁신성과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이 큰 유공자 표창과 다양한 지역혁신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공유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송재호 균형발전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박람회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초지자체가 주관해 개최하는 첫 박람회"라며 "지역이 주도하는 성장, 지역혁신을 통한 균형발전의 가치를 보여주는 선도 도시 순천에서 열리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고 모두가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더욱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축사를 통해 "지역 스스로가 특색에 맞는 혁신 정책을 마음껏 펼쳐서 '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균형발전의 핵심"이라며 "국가 균형발전 정책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몰려있는 공공기관과 기업 등을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5일 순천에서 시작된 '2019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에 참석한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송재호 위원장 등 주요인사들이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1층 로비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허석 시장은 환영사에서 "순천은 이제 생태·문화·교육을 기반으로 미래 산업을 준비하고 있다"며

"순천의 맛과 멋을 마음껏 누리시고 순천을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한편 2020년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 개최지는 충청북도 청주시 '문화제조창C'가 선정됐다.

순천=김승호 기자

광주시 '균형발전박람회'서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 과시

인공지능 등 미래산업 홍보

광주시가 '2019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in 전남·순천'에 참가, 미래먹거리 산업을 홍보하고 대한민국 4차 산업 선도도시의 역량을 과시했다.

25일부터 27일까지 순천만국가정원 일대에서 열리는 이 박람회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균형발전' 슬로건 아래 17개 광역시·도가 지역균형발전정책 성과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장이다.

광주시 전시관은 '광주, 대한민국 인공지능(AI)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 주제에 맞춰서 인공지능과 공기산업을 중점 전시했다.

또 4차산업혁명과 광주를 잇는 전시 공간 구성을 통해서 '광주를 연결하다(Link the Gwangju)'를 연출했다. 시연에서는 AI 기술을 도입한 안면인식 솔루션과 연계된 카메라로 인물을 탐색하고 인식된 인물의 정보를 스크린으로 띄워 보여주는 시스템을 구현해 큰 호응을 얻었다.

관람객들은 전시관에서 '스마트 에어샤워'를 통해 미세먼지 제거 상황을 실시간 확인·점검할 수 있다. '인공지능 안면인식 플랫폼'에서는 카메라를 이용해 얼굴을 사전 등록하고, 관람객이 캐릭터와 말풍선을 선택하면 자신의 얼굴이 전환되는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다. 관람객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터치스크린 방식을 적용한 문화콘텐츠와 광주형 일자리 정책을 소개하는 공간도 구성했다.



또 2019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홍보공간을 별도 구축해 광주의 문화

예술품을 알리고,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광주의 대표음식인 주먹밥을 비롯해 1913송정역시장의 대표 간식거리인 수제 인절미 초콜릿, 수제 과일양갱 등을 맛볼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전시관에 설치된 '인공지능 안면인식 플랫폼'과 '산소 발생기' 등은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들이 직접 개발하고 참여함으로써 4차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들을 직·간접적으로 홍보하는 계기가 됐다.

서은홍 기자

광주시, 노후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사업 시행

광주시는 각종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업내용은 총 사업비 55억5000만원을 투입해 건설기계 100대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고 구형 디젤엔진 270대를 신형 디젤엔진으로 교체하는 것이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대상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등 노후 건설기계다.

엔진교체 사업 대상은 2004년 이전 제작된 구형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삭기 등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노후 건설기계 소유자는 저감장치 제작사와 엔진교체 사업자를 선택해 신청 후 계약을 하면 이후 제작사나 사업자가 행정절차(참여신청, 저감장치 부착 또는 엔진교체 등)를 대행한다.

김종현 시 기후대과과장은 "미세먼지 없이 맑고 깨끗한 광주를 만들기 위해 첫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지원대상을 점차 확대해 미세먼지 저감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구 "제 손으로 만든 도마, 어때요?"

지난 24일 오후, 광주 동구 지산동 행정복지센터에는 연장과 나무를 든 사람들이 북적였다. 참가자들이 서툰 손길이지만 연신 나무를 다듬자 서서히 도마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다들 뿌듯한 얼굴이 역력했다.

광주 동구 지산1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용희)가 주관하고 한국마사회광주지사(지사장 정지련)가 후원하는 '목공예교실'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반응이 뜨겁다. 9월부터 10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목공예교실은 여가생활 기회가 부족한 돌봄 이웃 15명(회당)을 대상으로 전문강사와 함께 실생활에 필요한 도마와 밥상 등 목공품을 만드는 뜻깊은 시간을 갖는다.

서구, 공직자 친절 교육 실시

광주 서구는 지난 24일 민원이 만족하는 친절도시 서구 구현을 위해 전직원 친절 교육을 실시했다.

구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친절 교육은 한국소통교육센터 김선에 원장을 초청 "함께 행복해지는 관계를 만드는 친절서비스"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교육은 직원의 응대태도와 고객의 심리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쉽고 재미있게 구성돼 참여 직원들의 많은 공감을 이끌었다.

남구,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선정

광주 남구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0년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공모에서 2년 연속으로 선정, 남구의 미래 산업기반인 에너지 밸리 주변 지역에서 태양광과 태양열을 활용한 에너지 효율화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남구는 23일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 공모사업 선정으로 사업비 31억3,000만원을 확보했다"며 "해당 사업비로 에너지 밸리 지역인 대촌동과 효덕동, 송암동 지역 주택과 상업용 및 산업용 건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자립도시 고도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북구, 2019 마을 속 주제학교 개강

광주 북구가 "주민, 마을활동가 등 300여명을 대상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마을활동가 양성 및 주민참여 확산을 위해 '2019 마을 속 주제학교'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마을 속 주제학교'는 마을공동체 활동 사례를 분석하고 다양한 학습 과정을 거쳐 마을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공유해 마을공동체 활동에 필수적인 주민과 마을활동가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마을 속 주제학교는 25일 북구 평생학습관에서 개강식을 시작으로 오는 12월 13일까지 총 15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강의 내용은 마을활동가를 대상으로 도시, 문화, 사회적경제 등을 배우는 '학습워크숍'과 선진지 견학을 통해 현지 감각을 익히는 '함께워크숍' 그리고 북구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초청해 마을공동체 활동 사례를 들여보는 '누구나워크숍' 등 3가지 테마로 운영된다.

광산구 노사민정협, 지역경제 활성화 포럼 개최

25일 광주 광산구 노사민정협의회가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사민정 공동포럼'을 화순 금호리조트에서 개최했다.

50여명의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공동포럼은 토론회로 문을 열었다.

고영삼 광주경실련 사무처장의 사회로 열린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노사민정의 역할' 토론회에서 김영집 광산구기업주치의센터장은, 기초발제로 광주 거버넌스 현황·성과·한계를 소개하고, 지역 현실과 특성을 반영한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형택 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